



3면

"지방교부세 지연 우려... 집행 촉구"

전주매일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음 9월 15일) 제360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마지막까지 준비 '착착'

전북자치도, 6여일 앞두고
도내 언론과 준비상황 공유
숙박 등 주요 분야 브리핑
재외동포청장도 점검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6일 앞으로 다가온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 도내 언론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16일 도 출입기자단의 동행 취재를 통해 숙박과 교통, 기업 전시관 구축 등 대회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숙박시설에서부터 대회가 열리는 전북대학교까지 실제 이동 동선을 따라 브리핑을 하며, 전북을 찾을 재외동포 경제인의 동선을 점검했다.

먼저 호텔을 방문해 숙박시설 배치 현황과 대회장까지의 이동 동선, 셔틀 운행 간격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숙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호텔 뿐만 아니라 한옥 스테이 등 다양한 숙박시설 정보를 제공중에 있다.

대회기간 중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 등 위생점검을 실시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호텔을 출발해 대회가 열리는 전북대학교로 이동하는 동선에서 교통과 수송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도에서는 교통과 수송을 담당할 현장상황실을 구축하고, 주요 역과 터미널, 호텔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와 행사장 순환 버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편의를 높여나갈 예정이며, 행사장 전반의 교통질서 유지와 주차장 지도 관리를 위한 교통관리소도 운영되게 된다.

대회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대책도 수립되며, 안전 분야 지문을 통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대응팀 구성을 통한 현장 상황 유지 등을 추진한다.

특히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방, 의료·보건, 위생점검, 환경정비 등 대회 참가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둔 16일 한승용(사진 오른쪽)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특별자치도 사무국장이 전북 전주시 라한호텔에서 기자들을 초청해 대회 속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대회 주 프로그램이 운영될 기업전시관 조성은 현재 마무리 과정인 진행되는 공조, 전기, 통신 등 내부 설비 공사를 살펴봤으며, 완료되는 즉시 기관부스와 기업 전시 부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대회 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회를 맞아 전북을 찾아올 재외동포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전에 진행된 프레스테이에 이어, 오후에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의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지난 9월 전북을 찾은 이상덕 청장은 대회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 전북을 찾았다.

이 청장은 호텔과 전북대학교 각 시설을 방문해 대회장 조성 계획을 청취한 뒤 점검에 나섰다.

개회식이 진행될 삼성문화회관과 각종 회의가 이루어질 진수당을 점검한 후 기업전시관이 조성되고 있는 대운동장을 방문했으며, 마지막으로 오·만찬이 진행될 실내체육관을 방문하며 일정을 소화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특사경, 가을 농·산물 원산지 단속... 내달 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안전한 농·축산물 먹거리 확보와 건전한 원산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3주간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소비가 급증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 15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체결한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업무협약에 따라 도내 대형마트, 백화점, 유통·판매업체 및 호텔·웨딩홀 등 약 5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은 쌀, 콩, 배추감치 등 3개 농산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6개 축산물로, 음식점에서도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이만호 기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한비친구' 발대식



16일 전북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한비친구' 발대식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문승우 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성공개최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BTS도 반한 한복, 세계한인비즈니스 만나다

BTS 한복 의상 제작 황이슬 대표 자원봉사자 한비친구 의상 제작

세계적인 K팝 그룹 BTS의 의상을 제작한 한복 디자이너 황이슬(리슬 대표·사진)이 이번에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공식 자원봉사자 '한비친구'의 의상을 제작해 관심을 모은다.



자원봉사자들은 대회 기간 내내 황이슬 대표가 특별 제작한 모던한복을 입고 대회 운영을 도우며 한류의 본고장 전북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한다.

전북 출신의 황이슬 대표는 전통한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세계에 알린 디자이너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BTS가 2018년 '멜론 뮤직 어워드' 무대에서 그녀가 제작한 의상을 입고 'Idol'을 공연한 이후, 그녀의 모던 한복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

당시 황 대표는 한복 특유의 맵시를 유지하면서도 BTS의 역동적인 춤선을 고려해 편안함과 세련미를 모두 반영한 의상을 선보였다. BTS



한복 디자이너 황이슬 리슬 대표가 제작한 '한비친구' 의상.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의 무대를 계기로 황 대표는 한복이 전통적인 의상을 넘어 실용성을 갖춘 현대적 패션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의상 제작에도 그녀의 디자인 철학이 반영됐다. 자원봉사자들이 착용하는 한복은 전통 한복의 기본 요소에 현대적인 실루엣과 편리함을 더해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고려했다.

우리 고유의 조끼인 '해자'를 현대적으로 변형한 긴 조끼 스타일을 채택해 활동성이 중요한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게 디자인했다. 또한 자원봉사자

들이 소지품을 휴대할 수 있도록 전통 북주머니에서 영감을 얻은 가방도 전북농협의 후원을 받아 제작했다.

황 대표는 "이번 한복 제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자원봉사자들이 편안하게 활동하면서도 한복의 미를 알릴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며 "아름다운 한복이 행사나 축제의 단채색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옷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의상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상징성도 담겼다. 패지의 색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로고에서 가져온 파란색과 대회 로고의 주황색을 배치했고, 깃과 고름에는 대회의 로고와 엠블럼을 활용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는 한국을 찾는 경제인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고 싶다고 황이슬 대표에게 의상 제작을 의뢰했다.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었지만 황 대표는 센터의 뜻에 적극 공감해 대회와 전북을 상징하는 한복을 제작하기로 했고, 그 결과 이번 의상이 완성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있는 황이슬 대표가 고향 전북을 위해서 특별한 재능을 발휘해 줘서 대단히 고맙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21th Iksan Ten million Blossom Of Chrysanthemum Festival

이천시 | 주최: 익산시 | 주관: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

2024.10.18(금) ▶ 10.27(일)

중앙체육공원 등 4개소